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10.07.(월)		
담당부서	중소금융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이현석	(02-3145-7410)
		담당자	팀 장	이건필	(02-3145-7370)
	중소금융검사3국 검사1팀	책임자	국 장	허진철	(02-3145-8810)
		담당자	팀 장	문주환	(02-3145-8816)

A저축은행 및 B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사검사 결과(잠정)

- ◆ OO금융지주 계열인 A저축은행과 B캐피탈은 OO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하여 14억원의 대출을 실행*하였으며,
 - * “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사검사 결과(“24.8.12.)” 관련 추가 보도자료
 - OO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의 신청 및 심사과정에 개입하여 대출이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,
 - 용도외 유용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하였습니다.
 - 이는 OO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◆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*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며,
 - * 전임 회장 처남의 배우자, OO은행 출신 C법인 재무이사 및 A저축은행·B캐피탈 임직원등
 -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A저축은행 및 B캐피탈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.
- ◆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,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·조기적발을 저해하여
 -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 -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·강화하도록 지도·감독해 나가겠습니다.

I. 검사배경

- 최근 OO은행에서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 것과 관련하여,
 - 동 금융지주 계열사인 A저축은행 및 B캐피탈에서도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,
 - 금감원은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경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A저축은행 및 B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II. 검사결과 주요내용(잠정)

- 검사결과(잠정), A저축은행(7억원)과 B캐피탈(7억원)은 전임 회장의 친인척* 관련 회사에 총 1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습니다.
 - * 전임 회장 처남의 배우자, 전임 회장의 장인
 - (A저축은행) '24.1.31. 대출취급시 전임 회장 친인척(처남의 배우자)이 대표이사였던 C법인에 신용대출(종합통장) 7억원을 취급하였으며,
 -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 OO은행 출신 임직원*이 개입하였고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.
 - * C법인 재무이사, A저축은행 기업그룹장, 심사부 부장
 - (B캐피탈) '22.10.21. 전임 회장 친인척(장인)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하였고, 전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의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 - 또한, '23.10.30. D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여신위원회(위원장 : OO은행 출신 본부장)는 신용등급 악화,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이는 OO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<A저축은행 및 B캐피탈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현황>

회사명	차주	대출액	대출일	대출종류	대출취급 당시 대표이사
A저축은행	C법인	7억원	'24.1.31.	신용대출	전임 회장 처남의 배우자
B캐피탈	D법인	7억원	'22.10.21.	담보대출	전임 회장의 장인

Ⅲ. 부적정 취급 관련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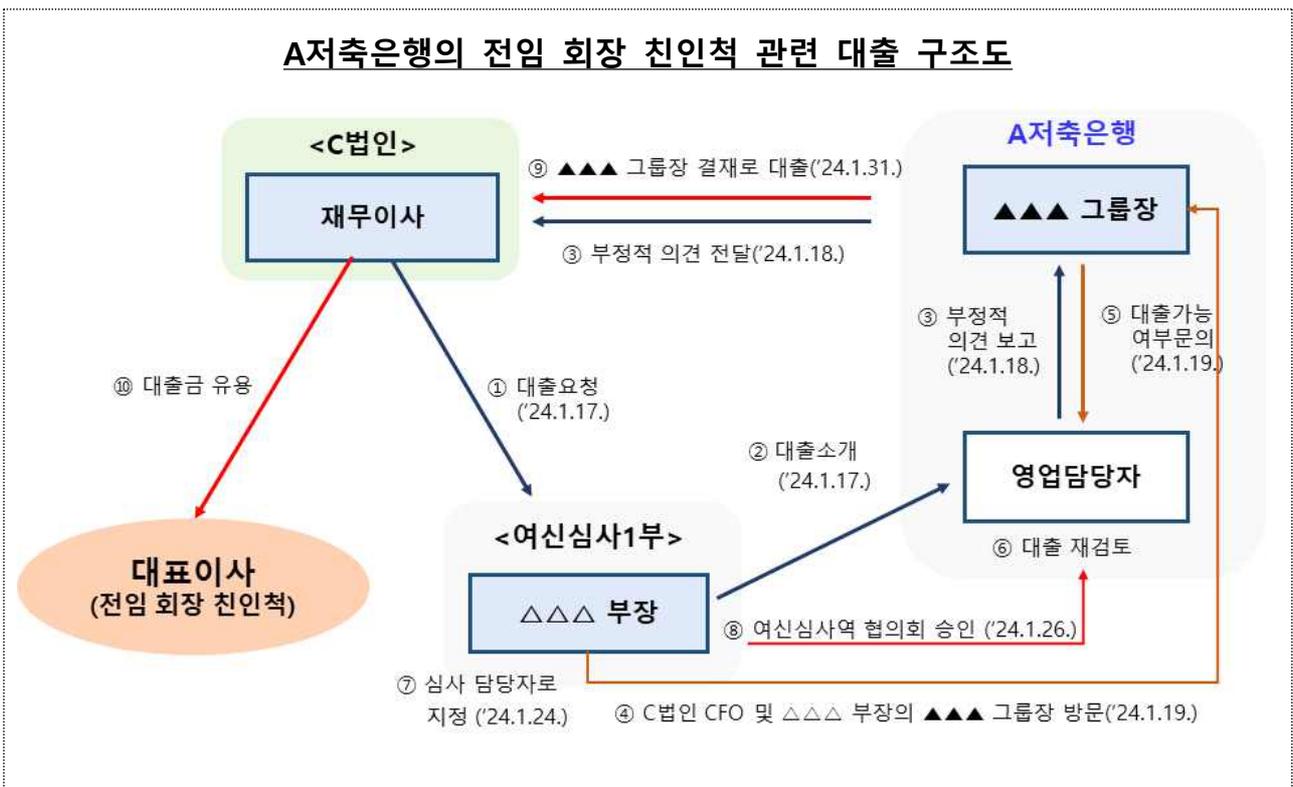
1 A저축은행

□ OO은행 출신인 C법인의 재무이사가 같은 OO은행 출신인 A저축은행 △△△부장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며(24.1.17.),

○ 非OO은행 출신 직원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C법인의 재무이사와 △△△부장이 OO은행 출신 A저축은행 ▲▲▲그룹장 면담(24.1.19.) 후 대출이 취급(24.1.31.)*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△△△부장이 심사담당자로 지정되어 차주 상환능력, 첨담보 가치 등을 검토한 후 여신심사역 협의회 승인(24.1.26.)을 거쳐 ▲▲▲ 그룹장 결재로 대출실행

□ C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(24.4.24.)하였으나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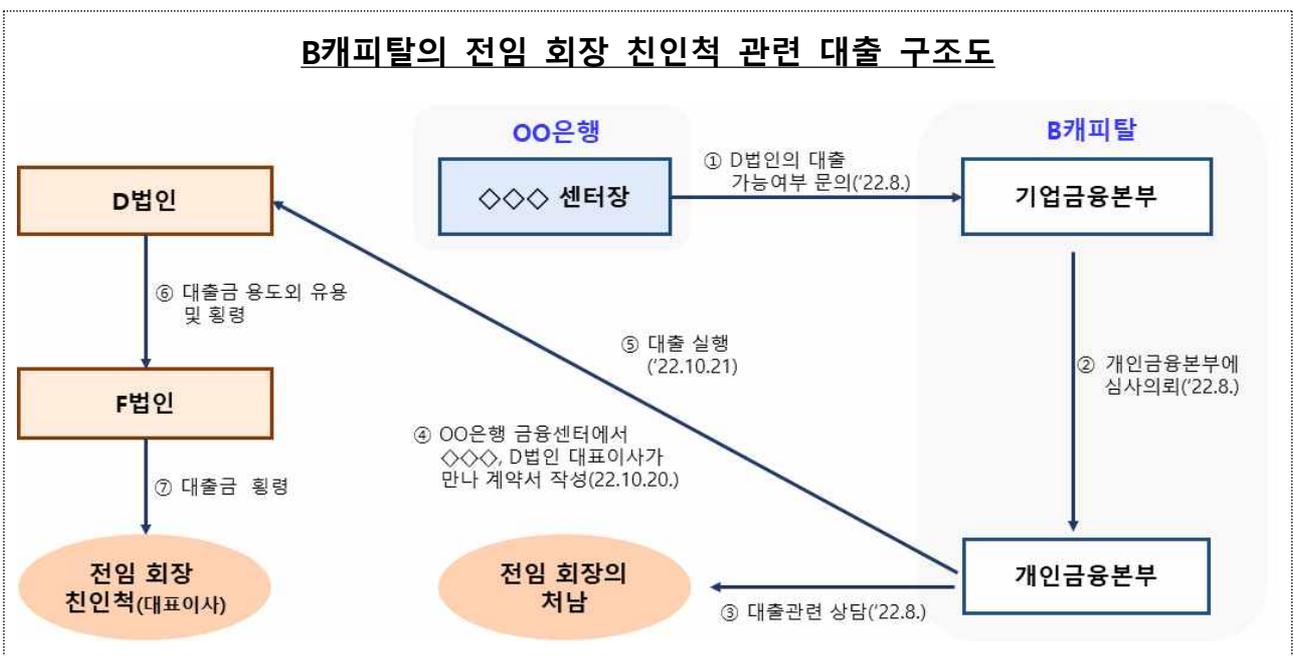


2

B캐피탈

- D법인에 대한 대출은 OO은행 ◇◇◇센터장이 B캐피탈 기업금융본부장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('22.8월)
 - B캐피탈 부동산금융팀장이 D법인 대표이사 아들과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OO은행 ◆◆센터에서 ◇◇◇·D법인 대표이사과 대출서류를 작성('22.10.20.)한 후 대출을 실행('22.10.21.)하였습니다.
- '23.10.30. 만기연장시 D법인이 원금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('23.10.20.) 신용등급 악화, 담보물 시세하락 등 상환여력도 악화되었음에도
 - OO은행 출신 □□□여신심사본부장 등이 포함된 여신위원회에서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B캐피탈은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, 대출금 중 일부가 전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되어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B캐피탈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구조도



IV. 향후 계획

□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* 및 관련인**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며,

* 전임 회장 처남의 배우자, OO은행 출신 C법인 재무이사 등

** 해당 대출의 신청, 심사 등에 개입한 OO은행 출신 A저축은행·B캐피탈 임직원 등

○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A저축은행 및 B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, 느슨한 윤리의식*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·조기적발을 저해하여

* OO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OO은행 전직 임직원이 저축은행 등 계열사,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관계사에 재취업하여 대출에 관여하거나 취급·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

○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
○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·강화하도록 지도·감독해 나가겠습니다.

※ 보도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향후 검사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